

* 2018년 소방 국어 (10/13일 시행) 해설 - 최정 국어

① 총평

2018년도 하반기 소방직 국어 시험은 2018년 상반기 시험보다 난도가 높아졌습니다. 국어의 경우 합격 점수가 4월 시험보다 약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역별 문항수를 살펴보면, 문학 6문항(고전 1, 현대 3, 문학 지식 2), 문법 8문항(현대 8, 고전 0), 어휘 3문항, 비문학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상반기 4월 시험은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균형 있게 출제되었던 것에 비해 하반기 시험은 문법과 어휘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소방 국어 시험에서 이론 문법의 문제는 음운론과 단어의 형성 부분에 치우쳐 있었는데 2017년 하반기 시험부터 균형 있게 출제되기 시작했고, 4월 시험과 유사하게 이번 시험도 음운론에서 형태소, 품사와 문장의 구조, 높임법 등 이론 문법의 주요 내용을 골고루 물었습니다. 또한 기출되었던 문제의 유형과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어 문법의 전 영역을 꾸준히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모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론 문법이 익숙한 유형으로 출제된 것에 비해 오히려 어휘 문제가 고유어를 고르는 문제,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찾는 문제 등 기존에 자주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되어 좀 생소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방직 시험에서 중시되었던 문학은 최근 시험에서 서사 갈래의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해 서사 갈래가 출제되지 않았고, 문학의 갈래를 묻는 문학 지식 문제가 2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한시의 형식이나, 판소리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런 문학적 지식을 묻는 문제는 사실 소방 국어 시험에서 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문학 해석 능력과는 무관한 문제로 아마 100점을 맞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의 문제로 보입니다.

현대시는 시의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 표현 기법 등 균형 있게 출제했습니다. 고전 문학은 문학의 갈래 외에 1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역시 가장 고난도의 문제는 상반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고전 시가(시조)에서 나왔습니다.

비문학 문제는 상반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3문항이 출제되었고, 문제 유형은 내용 전개 방식, 화제 찾기, 세부 내용 독해로 비문학 주요 유형의 문제를 골고루 출제했습니다. 기존 소방 국어 시험에서 중시되었던 화법과 작문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② 단원별 문항 분석

영역	세부 단원	문항 수
현대 문법	언어의 특성(1), 음운의 변동(1), 형태소(1), 품사(1), 문장의 구조(1), 높임법(1), 띄어쓰기(1), 외래어 표기법(1)	8문항
어휘	고유어(1), 한자성어(1), 유의어(1)	3문항
비문학 독해	내용 전개 방식(1), 내용 이해(2)	3문항
고전 문학	시조(1), 문학 갈래(2)	3문항
현대 문학	현대시(3)	3문항

③ 출제 비중 분석표

* 2018년 10월 소방 직 (영역별 문항 수)

문법		어휘, 한자성어	문학					비문학		
현 대	고 전		고전		현대		문학 지식	독 해	화 법	작 문
			시	서사	시	소설				
8	0	3	1	0	3	0	2	3	0	0

* A형 문제 해설

1. 다음 글의 내용이 나타내고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영미는 모두가 사물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싫어서 사물의 이름을 자신이 정한 다른 단어로 바꿔 부르기로 결심하였다. 영미는 ‘침대’를 ‘사진’이라 부르기로 결심하고는 “침대에 누울 거야.”가 아닌, “사진에 누울 거야.”라고 말하였으며, ‘의자’를 ‘시계’라 부르면서 “시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영미 주변의 친구들은 영미의 말을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었다.

- ① 언어의 창조성 ② 언어의 사회성
③ 언어의 역사성 ④ 언어의 자의성

1. [정답] ②

[해설]

언어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개인이 바꾸어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를 언어의 사회성, 불가역성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 ① 창조성 : 한정된 음운이나 어휘를 가지고 무한에 가까운 생각을 표현하거나, 처음 들어 보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③ 역사성 :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신생·성장·사멸하기도 한다. 언어가 변한다는 가역성이다.
④ 자의성 : 언어의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는 필연적 관계가 없는 자의적 기호이다.

2.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소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셔,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을 제 독야청청(獨也靑靑)히리라.

- 성삼문의 시조

(나)

가마귀 눈비 마주 희는 듯 검노미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랴.
님 향(向)흔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 박팽년의 시조

- ① (가)의 '백설'과 (나)의 '눈비'는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을 의미한다.
- ② (가)의 '독야청청'과 (나)의 '일편단심'은 삶의 태도 면에서 유사하다.
- ③ (가)의 '낙락장송'과 (나)의 '야광명월'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가)의 '이 몸'과 (나)의 '님'은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이다.

2. [정답] ④

[해설]

(나)의 '님'은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는 대상인 '임금'이다. 그러나 (가)의 '이 몸'은 화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는 대상(임금)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성삼문과 박팽년은 사육신으로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을 때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은 분들이다. (가)의 '백설'과 (나)의 '눈비'는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홀로 푸른 소나무인 '독야청청'과 (나)의 '일편단심'은 모두 임금(단종)에 대한 변치 않는 지조, 절개를 의미한다.
- ③ 자신의 충절을 (가)는 '낙락장송'에 (나)는 언제나 빛나는 '야광명월'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핵심 정리

작가 성삼문

갈래 평시조, 서정시

성격 지사적, 의지적, 비판적

주제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와 충성심

특징 • 전통적으로 충절을 상징하는 소나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조를 부각함
• 가정과 상징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 핵심 정리

작가 박팽년

갈래 평시조, 서정시

성격 의지적, 풍자적

주제 변하지 않는 절의와 지조

특징 • 임금에 대한 충성을 노래한 절의가임

• ‘가마귀’와 ‘야광명월’을 대조시켜 간신과 충신의 이미지를 뚜렷이 대비하여 표현함.

3. 다음 ㉠~㉣ 중 순우리말인 것은?

유럽을 여행할 때면 ㉠국경을 넘는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거미줄처럼 유럽 주요 ㉢도시를 이어 주는 국제선 열차를 타고 있으면 수많은 여행자와 함께 하루에도 몇 번씩 국경을 넘나들게 된다. 대부분 국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넘는다. 휴대 전화의 통신사가 바뀌면서 다른 국가로 들어왔다는 문자가 땡땡 울리고서야 국경을 넘은 사실을 알아차릴 정도다.

- ① ㉠ ② ㉡ ③ ㉢ ④ ㉣

3. [정답] ②

[해설] ‘거미’는 순우리말이다.

[오답 풀이]

㉠국경(國境), ㉢도시(都市), ㉣순식간(瞬息間)은 모두 한자어이다.

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 ① 화자는 순수하고도 탈속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④ 화자는 절제된 감정으로 ‘산’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4. [정답] ④

[해설]

화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산’은 화자의 소망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대상이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연과의 일체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거리가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이고 달관적인 삶을 꿈꾸고 있다.
- ② ‘살아라 한다.’의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자연과의 일체와 초월적이고 달관적인 삶에 대한 동경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산’으로 대표되는 자연은 시적 화자를 에워싸고 삶의 모습에 대하여 명령형의 권유를 하고 있다. 이는 자연이 화자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을 빌려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자연친화적, 초월적

제재 산

주제 자연 친화와 초월적 삶에 대한 동경

특징 ① ‘산’이 화자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함.

② ‘산이 날 에워싸고~ 살아라 한다.’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③ 자연에서의 삶의 모습이 점차 고양되어 가는 점층적 구조로 나타남.

출전 “청록집”(1946)

5. 다음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고,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회화·공예품 등의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이다. 사적은 기념물 중 유적·신앙·정치·국방·산업 등으로서 중요한 것이고, 명승은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중요 민속 문화재도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속한다.

- ① 분류 ② 서사 ③ 대조 ④ 인과

5. [정답] ①

[해설] 문화재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류의 설명 방식이 사용되었다. 분류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것을 나누거나 묶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구분이라고도 함.)

6.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cafe - 카페 ② vision - 비전
- ③ jazz - 재즈 ④ supermarket - 슈퍼마켓

6. [정답] ③

[해설] 외래어 표기에는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즈'가 맞다.

[오답 풀이]

- ① cafe - 카페
- ② vision - 비전
- ④ supermarket - 슈퍼마켓

7. 높임법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 ① 고객님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② 할아버지께서 네 방으로 오라고 하셨어.
- ③ 지금부터 사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④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여쭙어 보셨어요.

7. [정답] ②

[해설] 주체 높임법이 바르게 사용된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사물인 '커피'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고객님이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로 표현해야 한다.
- ③ 간접 주체 높임에는 높임말 '계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 ④ 아랫사람에게는 '묻다'를 쓴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물어어 보셨어요.'로 써야 한다.

8.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새 신발을 신으니 발이 아프다.
- ②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③ 그는 해외로 출장을 자주 다닌다.
- ④ 철수는 이번 시험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8. [정답] ①

[해설] '새'는 체언 '신발'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 ② '과연' ③ '자주' ④ '정말'은 용언이나 문장 전체,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9.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극 갈래는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 등을 거쳐 신파극, 근대극, 현대극으로 발전해 왔다. 가면극은 신라의 오기, 검무, 처용무에서 시작하여 고려의 나례, 조선의 산대희와 탈춤으로 발전하였다. 인형극은 삼국 시대의 목우희에서 나무인형으로 노는 인형극, 고려 시대의 꼭두각시놀음과 그림자극인 망석중 놀이로 이어졌다. 조선 후기에 발생한 판소리는 신재효가 ㉠여섯 마당으로 정리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 ① 만분가 ② 적벽가
③ 심청가 ④ 춘향가

9. [정답] ①

[해설] ‘만분가(萬憤歌)’는 연산군 때 사람인 조위의 작품으로 조위가 무오사화(1498) 때 전라도로 유배 가서 지은 유배 가사이다.

[오답 풀이]

신재효가 정리한 판소리 여섯 마당에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변강쇠가(가루지기 타령)’이 있다.

10.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것은?

- 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10. [정답] ④

[해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두 개의 홀문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고, -며, -나, -지만, -든지’의 대등적 연결어미에 의해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의 ‘낮말은 새가 듣는다. 그리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가 ‘-고’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나머지는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아, -어서, -으면’ 등의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지며 앞 절이 뒷 절의 ‘원인, 배경, 조건, 상황, 가정, 목적, 양보, 전환’ 등의 의미를 가진다.

11. 다음 한시의 형식적 갈래로 적절한 것은?

雨歇長堤草色多	비 갠 긴 둑엔 풀빛이 짙어 가는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어느 때 마르려는지

別淚年年添綠波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 정지상, 「송인(送人)」

- ① 5언 절구 ② 5언 율시
③ 7언 절구 ④ 7언 율시

11. [정답] ③

[해설]

정지상의 '송인'은 7글자, 4행으로 된 7언 절구의 한시이다. '율시'는 8행으로 된 한시의 갈래이다.

12.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진이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공부해야 한다며 공부 계획을 짜서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훈이는 그 책의 두께를 보는 순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여섯 달이 지난 후 시험에 합격한 수진이는 자신도 처음엔 책 두께를 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공부한 결과 그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있었다고 했다.

- ① 마부위침(磨斧爲針)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③ 어부지리(漁夫之利) ④ 상전벽해(桑田碧海)

12. [정답] ①

[해설] '마부위침(磨斧爲針)'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 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겹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어부지리(漁夫之利) : 둘 사이의 다툼을 틈타 제3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④ 상전벽해(桑田碧海) :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한 말이다.

13. '음운의 축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되 + 어 → 돼 ② 두 + 었다 → 뒀다
③ 가 + 아서 → 가서 ④ 쓰 + 이어 → 씌어

13. [정답] ③

[해설] '가+아서'가 '가서'로 표기되는 것은 동음탈락에 의한 것이다. 동음 '-아/-어'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풀이]

'되 + 어 → 돼', '두 + 었다 → 뒀다', '쓰 + 이어 → 씌어'는 모두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 이중모음으로 축약되는 모음 축약 현상이다.

14. 다음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눌 때, 적절한 것은?

하늘이 맑고 푸르다.

- ① 하늘이/ 맑고/ 푸르다
- ② 하늘/ 이/ 맑고/ 푸르다
- ③ 하늘/ 이/ 맑고/ 푸르/ 다
- ④ 하늘/ 이/ 맑/ 고/ 푸르/ 다

14. [정답] ④

[해설]

형태소는 조사와 어미, 접사를 모두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 '이', 어미 '-고, -다'를 분리해야 한다.

15.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작성하였다. <보기>의 문장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자료>

[한글 맞춤법]

- 제2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41항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보기>

ㄱ.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ㄴ. 한국인 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있을까?

ㄷ. 돈을 많이 모아서 멋진 집 한 채를 샀다.

ㄹ. 무궁화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꽃 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5. [정답] ②

[해설]

- ㄱ. '때'는 명사로 띄어 쓰고, '까지'는 조사로 붙여 썼다.
- ㄷ. '한'은 수관형사, '채'는 단위성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오답 풀이]

- ㄴ. '한국인만큼'에서 체언 뒤에 온 '만큼'은 조사이므로 붙여야 한다.
- ㄹ. '꽃입니다.'에서 '입니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으로 붙여 써야 한다.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통계 수치 본 적 있니? 현재 지구촌의 65억 인류 중 약 1/4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그 중 70%가 여성과 아이들이다. 또 약 20억 명의 전 세계 어린이 가운데 1억 2천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며, 비슷한 수의 어린이들이 거의 노예 노동을 하고 있어. 또한 매일 3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지.

그런데 이상한 점은 후진국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들이어서 평생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지지. 왜 그럴까?

그것은 대부분의 제3 세계 나라들이 선진국의 식민지였거나 독립 이후 자유 무역에서도 여전히 종속적 위치여서 진정한 자치와 자율을 실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또 그런 구조 속에 이뤄진 경제 발전조차 내실 없이 외형만 커졌던 탓이기도 하고.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은 1인당 GDP가 3~4만 달러이고, 한국은 2만 달러 수준이지만, 제3 세계 나라들은 아직도 100~200달러 수준이 많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양심적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공정 무역 운동이야. 한마디로 선진국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가 후진국 사람들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성,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후진국 사람들이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야 한다는 성찰이 공정 무역을 탄생시킨 것이지.

공정 무역은 1950년대 말 영국의 국제 구호 단체 ‘옥스팜’에서 중국 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옥스팜’과 ‘텐 사우전드 빌리지’ 같은 시민 단체들이 제3 세계의 정치적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운동에 뛰어들면서 그 흐름이 대중화되었어. 특히 1989년, 전 세계 270개 공정 무역 단체가 가입한 국제 공정 무역 협회의 출범 이후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운동이 활발하지. <중략>

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전 세계 공정 무역 제품 판매는 16억 유로(약 2조 1,500억 원)어치로, 2005년에 비해 42% 늘었대. 공정 무역 인증제품만 2,000여 개 품목이 유통되고, 700만 명 이상의 생산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

스위스에서는 판매되는 바나나 중 47%가 공정 무역으로 들어온 것이고, 영국에서는 공정 무역 원두커피의 점유율이 20%나 된다고 해. 독일에서는 노동계, 환경 단체, 기업이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 무역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통해 농산물이 유기 농법으로 생산되도록, 또 농산물이 제값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잘 감시하지.

이렇게 윤리적 소비 운동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공정 무역이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무역이 아직 생소한 개념이야.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공정 무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

2004년에 우리나라의 한 소비자 단체에서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마스코바도 설탕을 팔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점점 관심이 늘어나 몇몇 시민 단체에서도 커피, 의류 등의 공정 무역 제품을 내놓고 있지.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에서 나온 거야.

2007년에는 한 은행의 노동조합과 소비자 단체가 연대하여 ‘윤리적 소비’ 실천을 위한 물품 공급 협약식을 맺었어. 이 협약은 노동조합이 윤리적 소비 실천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운동을 펴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 그리고 제3 세계의 농민 공동체에서 생산해 공정 무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소비하겠다고 다짐한 첫 사례라 큰 의미가 있다고 봐. 최근 강조되는 ‘1사 1촌 운

동'을 통한 농촌 살리기가 공정 무역을 매개로 국경을 넘어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지.

16. 윗글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할 때,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정 무역의 뜻은 무엇일까?
- ② 공정 무역의 문제나 한계는 없을까?
- ③ 공정 무역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 ④ 공정 무역은 언제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실태는 어떠할까?

16. [정답] ④

[해설] 공정 무역의 유래와 현재 상황, 사례를 설명한 글이다.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공정 무역은 선진국의 대기업에서 시작되었다.
- ② 후진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아지고 있다.
- ③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무역이 5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 ④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도 공정 무역 운동의 하나이다.

17. [정답] ④

[해설] 끝에서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에서 나온 거야.”의 내용과 일치한다.

18. 밑줄 친 고유어 '느낌'에 대한 유의어를 한자어로 바꾸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도 잘 알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 기분(氣分)
- ② 그 책에 대한 느낌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 → 소감(所感)
- ③ 전학 가는 보람이를 배웅하는데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 감정(感情)
- ④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행동에서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감회(感懷)

18. [정답] ④

[해설]

'감회(感懷)'는 지난 일을 더듬어 생각하며 느끼는 회포를 뜻한다. 따라서 현재 느끼는 감정과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식어 '미심쩍은'과 함께 '느낌'을 표현하면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뜻하는 '의심(疑心)' 정도로 바꿀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기분(氣分) :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분위기.
- ② 소감(所感) : 마음에 느낀 바.
- ③ 감정(感情) :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19. 다음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바람은 넘실 천 이랑 만 이랑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피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럴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 김영랑, 「오월」

- ①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색채 대비를 통해 풍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직유를 통해 산봉우리를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19. [정답] ④

[해설]

직유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산봉우리를 친근감 있게 표현한 것은 의인법에 의해서이다. 보리와 산봉우리를 의인화하여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었다.

[오답 풀이]

- ① ‘이랑 이랑’, ‘쫓길 뿐’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마을에는 꽃이 만발하고, 들에는 푸른 곡식들로 가득한 봄에 화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 피꼬리, 산봉우리 등을 보며 봄의 싱그러움을 느끼고 있다.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 ③ 붉은 꽃과 푸른 빛깔의 보리밭의 색채 대비를 통해 풍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낭만적, 묘사적

제재 오월의 들과 산봉우리

주제 오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 봄날의 생명력

특징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

② 의인법과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있음.

③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쾌한 음악성을 느낄 수 있음.

출전 “문장”(1939)

20. 다음 시의 ㉠~㉣에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① ㉠ ② ㉡ ③ ㉢ ④ ㉣

20. [정답] ④

[해설]

㉣은 ‘겨울’과 ‘강철’, ‘무지개’의 이질적 이미지를 결합한 역설법이다. 이는 극한 상황에서 참된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시적 화자의 비극적 초월의 모습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남성적, 지사적

제재 현실의 극한 상황

주제 극한 상황에서의 초월적 인식

특징 ① 기승전결의 한시적 구성 방식을 취함.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③ 강렬한 상징어와 남성적 어조로 강인한 의지를 표출함.

④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긴박감을 더하고 대결 의식을 드러냄.

출전 “문장”(1940)